



옥정호

임실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옥정호'를 전국 관광브랜드로

전북 임실군이 옥정호를 전국적인 관광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임실군은 민선 6기부터 추진한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옥정호 수변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시작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기 때 옥정호 가운데 있는 '붕어섬' 부지 6만6천㎡를 사들여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꽃과 나무를 심었다.

올해부터 5년간 250억 원이 투입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옥정호의 수변 및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시설 조성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곡선형 집라인을 비롯한 체험 시설과 커뮤니티센터, 휴게공간, 요산 공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친화형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테마공원과 캠핑장, 수변 데크, 국내 최대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을 만들어 수변과 생태·산림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수변 관광 기반시설도 들어선다. 옥정호 주변을 걸어서 여행하는 둘레길 7.3km를 만들고 생태 탐방선도 운항한다.

특히 옥정호 가운데 있는 '붕어섬' 부지 6만6천㎡를 사들여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꽃과 나무를 심어 산림욕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옥정호 순환도로도 연차적으로 개설된다. 4억6천만 원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옥정호는 지난 1965년 국내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저수지로, 농업용수뿐 아니라 인근 전주, 김제, 정읍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옥정호에는 붕어와 잉어, 가물치, 메기, 쏘가리, 빙어 등 담수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 때문에 옥정호에서 피어나는 물안개와 붕어마을로 불리는 호수 안에 있는 섬의 광경이 장관이다.

내년에 개통되는 출렁다리는 육지에서 붕어마을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는 '임실N치즈'에 이어 임실군 관광산업을 이끌 소중한 자원"이라며 "옥정호가 특색있는 관광지로 전국에 널리 홍보되고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붕어섬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